

# 日 재양 시선 못뗀 1주일 '방사선 신드롬'

미역·다시마·김 등 매출 30% 이상 늘어

요오드약 문의 빗발... 방사능 수치 조회 급증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사태가 18일로 일주일째를 맞으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때아닌 '방사선 신드롬'이 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잇단 폭발로 방사선 유출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사성 요오드 노출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조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약국에는 요오드 약품의 구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부 홈페이지는 방사선 수치를 체크하려는 접속이 쇄도하고 있다.

18일 광주시 서구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지진 발생 전과 지진 발생 후 일주일 동안 견미역·불미

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 매출이 무려 30% 이상 뛰었다.

일본에서 방사능 피폭 관련 소식이 전해진 지난 15일 이후 판매량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리 요오드를 복용하면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더라도 몸 안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 수산물 담당자는 "고객들이 해

조류 코너를 자날 때마다 뉴스를 인용해,

입버릇처럼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매진된 해

조류 상품을 1차례 보충했으나 현재는 하

루 4~5 차례를 넘길 때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이마트 광천점에서도 해조류 판매가 예전 매출액 기준 6% 가량 증가했다. 이마트 광천점은 방진마스크와 긴급구조용품 등에 대한 문의도 잇따라자 관련 상품 주문량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약국에서 때아닌 요오드약을 찾는 시민들도 부쩍 많아졌다.

서구 A약국 관계자는 "원전 폭발 이후, 하루 3~4명의 손님이 요오드약을 찾고 있다"며 "요오드 단일 성분의 약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요오드가 포함된 종합비타민제를 구입하거나 천연 해조류 등을 섭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 B약국 관계자도 "요오드가 무엇이냐, '약을 구할 수 없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방사선 수치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루 2차례(10시·17시) 국내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를 발

표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는 인기 사이트(?)로 급부상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에 정보를 옮기고 있다.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스마트폰 사용자도 많아졌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일본 원전 상황을 지켜보려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뉴스채널인 YTN 앱은 앱스토어 다운 순위 22위에 올랐다.

직장인 안모(37·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정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방사능 피폭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나, 연일 악화되는 일본 상황에 불안 심리는 커져만 간다"며 "방사능과 관련해 피폭에 방이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 아니냐"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이마트 신세계점에서 시민들이 해조류 코너를 찾아 다시마를 구입하고 있다. 해조류가 방사성 요오드를 배출시킨다고 알려지면서 해조류 판매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Namj@



## 식약청, 요오드 일반약 허가 검토

일본 원전 폭발로 방사선 공포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방사성 요오드 노출을 치료하는 의약품 요오드 화칼륨(KI)의 일반약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식약청은 한 제약사가 KI 성분의 의약품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을 완료해 오자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신속한 절차에 따라 일반약 또는 전문의약품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KI가 일반약으로 허가돼 의

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인이 대량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오남용 사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는 국내 생산이 전무하지만 2006년까지 생산됐던 KI 성분의 의약품의 한 알에는 요오드 130mg이 들어 있다.

요오드화칼륨은 침샘의 염증과 위장 장애, 알레르기 반응,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요오드화칼륨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예민하다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 햄버거·피자 '식품 알레르기' 주원인

### 비포장식품 '주의'

햄버거, 피자 등 비포장 식품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밤간한 '소비자시대' 3월호에 따르면 최근 3년(2008년~2010년 11월)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관련 위해정보 1만3천922건 중 식품 알레르기 관련 사례가 12.5%(1천744건)에 달했다. 이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인 사례는 655건으로 37.6%

였다.

알레르기를 일으킨 식품은 햄버거·피자 등 기타 조리식품이 24.3%(424건)로 가장 많고 뒤이어 어패류(16.1%), 유제품(11.1%), 빙·과자류(9.7%), 과일·채소류(9.5%), 계·새우·킹크랩 등 갑각류(6.7%) 등의 순이었다.

식품 알레르기 주요 증세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폐쇄, 천식, 장염, 폐렴증 등으로 나타나며 극소량 섭취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식품 알레르기 주요 증세는 아

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폐쇄, 천식, 장염, 폐렴증 등으로 나타나며 극소량 섭취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



'봄의 전령사'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이 가득한 1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에 매화가 만개해 지나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새봄의 정취에 젖어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

###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광주지법 파산부의 '법정관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18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선 판사의 고교동창인 강모 변호사와 의뢰인간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통화내역 조회와 금융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강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선부장판사의 통화내역 등 총 1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편, 선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친형과 친구인 강 변호사를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9일자로 재판에서 배제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여수도시공사 前 사장

### 업무상 배임 혐의 영장

여수경찰은 18일 업무 추진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여수도시공사 전 사장 이모(54)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여수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을 조성하면서 시행사인 S건설이 모은 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변제 확약을 해줘 도시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군이 경력을 일으킨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히지 않았다는 이군 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에게 설치된 CC-TV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병원진단 감기약 복용 생후 18개월 男兒

### 어린이집서 돌연사

#### 방사 후 5마리·3마리 생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9년과 지난해에 이어 울해도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새끼를 낳았다고 18일 밝혔다.

새끼를 출산한 어미 곰(관리번호 RF-21)은 2007년 러시아에서 도입한 곰으로 지리산 바위굴에서 동면한 후 지난 1월 초에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곰은 2009년 두 마리, 지난해 두 마리 등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다섯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러나 두 마리는 죽고 이번 새끼곰을 포함해 세 마리가 살아 있다.

김종달 국립공원종북원센터장은 "그동안 출산이 가능한 암컷 곰을 집중 모니터링하던 중 최근 동면굴 밖으로 나온 새끼를 활영하는데 성공해 출산을 확인했다"

며 "아생에게 새끼를 출산하고 있는 것은 방사된 곰이 지리산 서식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이날 오전 감기 증세를 보

#### 옛 동거녀 목졸라 살해

#### 서부경찰, 50대 검거

이번 주말 중국 충북지방에서 접근하는 기암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북 지역은 19일 밤부터 2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18일 봉황에서 밤원한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기상정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19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지속되며 기암골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릴 것"이라며 "이번 비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예보했다. 예상강수량은 19일 5mm, 20일 20~60mm.

19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 아침 최고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이며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1도를 보이겠다.

한편,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3~5

도 가량 높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

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

다. 비가 그친 뒤 다음주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다"고 18일 예보했다. 예상강수량은 19일 5mm, 20일 20~60mm.

19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 아침 최고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이며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1도를 보이겠다.

한편,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가량 높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 그친 뒤 다음주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기자 kimho@

#### 체불 임금 요구 근로자

#### 흉기로 살해 4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은 18일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권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집에서 박모(여·49)씨의 목을 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약 5년 전부터 박씨와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김씨는 이날 자신을 찾아온 박씨에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설정된 공장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

@goolee@kwangju.co.kr

"우유먹고 배들" 협박 식피리치 철창행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빵을 산 뒤 "배들이 났다"며 주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식피리치'들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8일 광주지역 중소형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산 뒤 마트 주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최모(37)씨와 문모(여·47)씨 등 2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호프집 주인과 종업원 관계인 이들은 지난달 26일 북구 한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산 뒤 다음날 "배들이 났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는 등 19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 가량을 뜯어냈다는 것.

/이종행기자 goolee@kwangju.co.kr

## 포근한 주말... 휴일 황사비 조심

### 기상안내전화 : 국면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